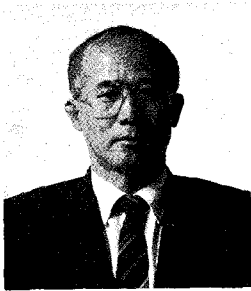


순수한 중간평가를.....

-전국계우회연합회의 영입을 계기로-



신정재
과학사료(주) 대표

십 여년전에 미국사료곡물협회의 초청으로 미국의 양계업계를 비롯한 몇개 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중 미국 브로일러협회(NBC)를 방문하여 미국의 브로일러산업의 실태를 설명을 듣는데 좋은 통계자료들이 있어 메모지를 달라고 했더니 한번 타이프를 쳤던 페이지를 반으로 찢은, 한면밖에 쓸 수 없는 정말 '귀한 메모지'를 갖다 주면서 "우리는 브로일러업자들이 한마리 출하할 때 얼마씩을 낸 돈으로 운영되는 협회이므로 경비를 최소로 줄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돈은 소비촉진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하면서 페이지를 한번 더 사용하는 사정을 설명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사정을 여러가지로 느껴본 적이 있었다.

우리 대한양계협회도 소비촉진운동을 하고 있으나

업계변화에 따른 역할과 인적구성, 경비의 효율적모
금과 사용 등 협회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때가 온
것으로 느껴진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전국계우연합회가 본 양계
협회로 들어와 본회에 있는 채란분과위원회를 더욱
강화하여 명실공히 채란업계의, 채란업계를 위한,
채란업계에 의한 단체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음(만
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참 잘된 일이라 생각된다.

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간판(전국계우회연합회)
을 달아야 되겠다든지 등의 사소한 명분상의 문제는
협회에서 전부 수용하고 우선 통합해서 명실공히 생
산자단체가 되어야 한다.

본 협회는 1962년 한국가금학회로 출발한 이래 뜻
있는 교수분들에 의한 헌신적인 사양기술의 전달을
위한 산학협동의 수준이 아닌 계몽활동적 역할에서,
1970년대부터 성장하는 업계와 함께 몇몇 대군업자,
부화업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오던 시기는 지나(양계
업계의 이런 추세는 역대 본 협회 회장님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양계업자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협회의 탄생은 필연적이라 하겠
다.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협회를 운영할
때는(물론 업계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그리고 말 그대로 “산
하단체”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었을지 모르나 밀려오
는 축산물수입개방압력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협회
혹은 업계 스스로의 단합된 힘이 아니면 누가 막아
줄 것인가?

현정부는 약속한 중간평가를 하려다가 신임투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정책평가만이라도 하겠다고
했다가(어느야당 당수를 만난뒤) 그것도 별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지 현 4당체제유지에 도움이 안되는지 모르지
만)해서 연기(무기)된 상태이다.

전국계우회연합회의 본협회에의 영입은 우리나라
양계업계 발전에 큰 전환점으로 삼아 그간의 문제되
었던 양계업계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고 협회

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양계협회의 중간평가의 계기
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신임연계가 아닌 순수정책평
가가 있어야 하겠다.

1991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입개방예정인 농축산물
은 300여가지에 달한다. 우선 내년부터는 계육은 개
방될 예정이다. 이에대한 대책은 누가 세울 것이며
인건비 사료비등 생산원가의 상승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소비자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계란가격의 전근대적 유
통과정에서의 탄력성 없는 결정은 두고만 볼 것이
나?

일본 계란수입현황(88년11월)

(단위 : kg, 1,000엔)

	액 란		난황액		전란·난황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중 국	10,000	969			10,000	3,701
이스라엘	48,000	6,000				
남아프리카	16,000	1,532	88,912	16,395		
대 만			470	872		
덴 마 크			72,000	12,878	20,000	7,075
캐 나 다			22,596	4,295	59,010	24,137
미 국			736,698	141,703	75,594	35,963
프 라 질			63,360	12,079		
스 웨 덴					46,068	17,493
네덜란드					20,000	7,556
합 계	74,000	8,501	984,036	188,222	230,672	95,925

자료 : 대장성무역통계

크나큰 일본시장(도표)을 개척할 수는 없는 것이
나? 이같은 일을 수행할 전문적인 인적자원은 확보
되었는가?

이제는 생산단체로서의 압력단체가 아니라 양계업
의 생존권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대한양계협
회가 되어야 한다. 전국계우회연합회의 영입과 함께
제도적 인적구성의 개선으로 원활한 새출발을 기대
한다. **양계**